광남일보

조간 제7993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음력 11월 7일)

닫힌 하늘길…무안국제공항 재개항 해법 찾아야

공항 통합이전 합의·1조 규모 지원…활성화 '골든타임'
유가족 이해·설득 가능한 '진상규명' 정부 답 내놓아야
총리실 총괄 예정…절차 감안 내년 상반기 재개항 기대

12·29제주항공 참사 1년

제주항공 참사로 무안국제공항의 하늘길이 닫힌지 1년이 되가며 재개항을 통한 서남권 거점공항으로서 도약을 기대하는 지역민의 바람이 커져가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에서 합의가 이뤄지며 무안에 1조원 규모의 지원사업이 제시되며 공항 활성화에도 청사진이 펼쳐진 반면,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마무리되지 않으며 공항 재개항을 막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5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 주관으로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방부가 참여한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 첫 회의에서 군공항 이전 합의문을 발표, 18년을 끌어왔던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 이전이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항공 MRO 센터와 RE 100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1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무안군 지원사업의 밑그림이 그려졌고, 호남지방항공청 신설, 공항 명칭을 '김대중공항'으로 변경, 광주공항 국내선의 조속한 무안공항 이전이 이뤄질 것으로 무안국제공항의 서남권 거점공항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무안공항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있고, 국내 최초로 공항에 KTX 역사가 완공될 경우 탁월한 접근성으로 이용객 확보에도 도움이 돼 공항 활성화를 단기간에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큰 걸림돌이 앞을 막고 있다. 바로 제주항공 참사 이후 공항이 폐쇄돼 멈춰서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 착륙하려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며 폭발해 170명이 넘는 승객과 승무원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지 1년여가 지났지만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이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진상규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 과정의 공정성, 정보 공개의 폐쇄성, 사고 피해를 키운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며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에게 납득할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다.

유가족들은 정부가 죽은 조종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 사고 원인을 '인재'로 결론지으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엔진 결함이나 기체 노후화 가능성, 활주로 끝단에 설치된 계기착륙장치 안테나 보호용 콘크리트 둔덕 등에 대한 조사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안국제공항은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맞이하고도 계속 멈춰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사고로 무안국제공항은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 '전면적인 안전 정밀 진단' 단계에 들어갔고, 사실상 공항의 기능이 마비됐다. 항공사고로 인해 안전성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가 큰 데다, 전남도가 공항 활성화를 위해 투입했던 항공사 손실보전금과 관광 홍보 예산 수백억원이 사실상 매몰 비용이 됐을뿐 아니라 공항 인근 상권은 1년째 유령 도시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안공항 국제선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을 모객하던 여행사 등 관광업계의 타격이 커 광주공항의 국제선 임시 개통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사고 현장의 시설 복구를 완료하고, 계기착륙장치 교체, 활주로 연장 보강 공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유가족의 요구를 반영해 제주항공 참사 문제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총괄하게 되면 불신을 받고 있는 사조위가 재구성돼 사고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조사 내용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절차를 감안하면 무안공항의 재개항은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된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무안공항 재개항을 위해서는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이해·설득하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진상규명,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상반기 내에 개항해서 하계노선을 받아 무안국제공항이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메리 크리스마스 25일 담양 메타프로방스 산타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메리크리스마스를 외치며 즐거워하고 있다. '우린 누군가의 산타'를 주제로 열린 '제7회 담양 산타축제'는 담양의 겨울 대표 축제로 거리 행진과 점등 퍼포먼스, 불꽃놀이 등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했다. 축제 기간 초대가수와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 LED 조명등 만들기, 키링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조국 "광주시장 후보 내정…전남지사는 물색"

광역의원, 비례대표 집중…기초의원, 다인선거구 위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내년 치러질 6·3 지방선거의 광주시장 후보는 염두에 둔 이가 있고, 전남도지사는 인물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24일 광주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지방선거 계획과 관련해 "다인선거구를 중심으로 많은 후보를 내 당의 풀뿌리 기반을 닦는 데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광주시장 후보는 구체적으로 염두에 둔 인물이 있다"며 "전남도지사 후보는 아직 찾지는 못했지만 포기한 것이 아닌 계속해서 물색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광역·기초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기초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광주·전남에서는 기초의원 선거에 집중할 구상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광주와 전남은 더불어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만큼 2인 선거구보다 다인선거구에 기초의원 후보를 내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최소한 1명이라도 지방의회에 진입해 발언권을 확보할 방침이며,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시민분향소를 찾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연합뉴스

조 대표는 지방선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면서도 조국혁신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총선 때 호남 전체에서 강력한 지지를 보내줘 감사하다"며 "그러나 역설적이게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어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떨어져 이번 지방선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총선 때는 유권자의 표가 2개(지역구·비례) 였지만 지금은 1개인 상황에서 광주·전남에서 민주당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란 점도 알고 있다"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조국혁신당이 레드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 대표는 당 지도부와 함께 오는 27일까지 호남을 순회하며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정치개혁과 당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호남 집중 주간'을 진행한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전남 통합 선택 아닌 생존

정준호, 행정통합법 대표 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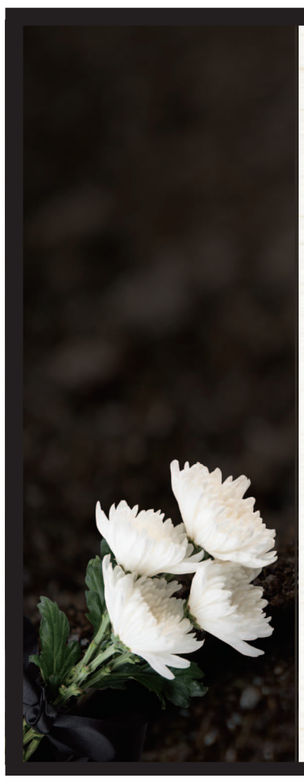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해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광주전남 5극3특 행정통합법(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과밀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단일 시·도 체계를 넘어서는 완전한 행정통합과 초광역 자치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골자다. ▶2면에 계속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토·일 신문 쉽니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서 계속



부 고

학교법인 성인학원 호남대학교 설립자(성인省仁) 박기인 명예이사장님께서 2025년 12월 24일 오전 0시 26분 향년 92세 숙환으로 별세하셨기에, 다음과 같이 학교법인 성인학원 호남대학교葬으로 영결식을 거행함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빈 소 : 호남대학교 중앙도서관 국제회의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호남대길 17 호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영 결 식 : 2025년 12월 28일(일) 오전 10시 30분 호남대학교 문화체육관

자 녀 박상학 박경희 박상건 박상철

자 부 정순희 박진희

사 위 서강석

손 박선하 박찬훈 박성원 박성민 박성준 박호준 박희준 서주원 서재원

장례위원장 장병완

장례위원 강기정 구길용 김경남 김낙곤 김대중 김병내 김성운 김영록 김이강 김종석 김창승 류영현 문 인 문병채 민형배 박관택 박병규 박주일 안도걸 양무남 이경수 이승배 이재욱 이정선 임 택 전갑수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한상원

집행위원장 김관선

집행위원 강웅일 강주현 고영일 김광택 김덕모 김현철 변재영 손왕이 송창수 유혜숙 유희익 이동우 전종수 최영화 하재욱 한 선 한영민 황용선

학교법인 성인학원 호남대학교

연락처 : 호남대학교 총무과 062-940-5878

※ 고인의 유지에 따라 조의금은 정중히 사양합니다.